

증권 디이제스트



키움증권

연 4.53% 신종자본증권

키움증권은 대구은행 신종자본증권을 세전 4.53%에 판매한다. 대구은행 신종자본증권은 신용등급 AAA (한국기업평가), 만기는 2099년 12월 31일(2023년 7월 12일 중도상환 옵션有), 연 수익률은 세전 4.53% 수준이다.

신종자본증권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 안정성 요건을 충족해 금융감독당국이 기본자금(자본금)으로 인정하는 채권이다. 주로 은행 등 금융기업들이 자본화 층을 목적으로 발행하며, 대부분 영구채로 발행이 되는 대신, 중도상환 옵션이 있어 5년 뒤 상환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기가 길지만, AA등급 이상의 금융기업 채권을 4% 수준의 금리로 매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손엄지 기자



미래에셋대우-제이케이미래

스마트타운 조성 MOU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7일 서울 미래에셋센터원에서 시행사 제이케이미래와 청라G-City를 포함한 국내 민간 주도의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을 위해 포괄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미래에셋대우와 제이케이미래는 향후 국내에서 추진되는 민간 주도의 스마트타운 조성사업과 관련된 원활한 금융 조달에 상호간에 협력을 도모 할 수 있게 됐다.

제이케이미래 주식회사는 지난 2014년부터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시행사로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4차 산업의 첨단기술이 접목되는 부동산 시장의 선도적인 변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됐다.

/김문호 기자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대여서비스 개시

신한금융투자는 증권업계 최초로 리테일 고객 '해외주식 대여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용고객에게 최대 300만원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해외주식 대여 서비스'는 해외주식을 보유한 고객이 그 주식을 잠시 빌려주고, 그에 따른 대여 수익을 얻는 서비스다. 고객이 주식을 대여한 상태에서도 즉시 매도가 가능하고, 배당 및 모든 주주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처럼 안정적 시장 수익 확보와 권리보장 혜택의 매력으로, 선진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저금리 시대의 주식투자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130년 中 전통식품… 4년간 연 16.7% 성장

IPO 간담회

윙입푸드

21~22일 청약, 30일 코스닥 상장
작년 매출 840억, 영업익 240억

중국 육가공 식품기업 윙입푸드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지난 해 상장철회를 결정하고 두 번째 상장 도전이다.

윙입푸드는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14, 15일 수요예측을 거쳐 21, 22일 청약을 실시하고 오는 30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윙입푸드는 중국식 살라미 원조 브랜드로 130여년의 업력을 갖고 있다. 현재 왕현도 윙입푸드 대표이사는 4세대 경영인이다.

중국식 살라미는 돼지고기를 자연환경에서 건조시켜 만드는 식재료로 중국 고유의 전통식품이다. 소시지는 삶아서 가공한다면 살라미는 고기를 말려서 가공한 건식 육가공제품이다.

윙입푸드는 1886년 가정에서 만들어



왕현도 윙입푸드 대표이사.

며년 살라미를 상업화한 최초의 기업이다.

또 지난 2016년에는 업계 최초로 즉석 살라미 제품을 출시했다. 기존 제품인 전통식 살라미는 조리 과정이 필요한 식재료인 반면 즉석 살라미는 조리 없이 바로 섭취가 가능한 식품이다. 즉석 살라미는 출시 1년 만에 매출 100억원을 넘어서며 흥행에 성공했다.

윙입푸드는 지난해 매출액 840억원, 영업이익 24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액 473억원, 영업이익 156억원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매출액의 제품

별 비중은 중국식 살라미 53%, 중국식 베이컨 17%, 즉석 살라미 18%로 구성돼 있다.

중국 내 전통식 살라미 빅4(BIG4) 기업 매출액을 계상했을 때 시장 규모는 4000억원에 달한다. 그리고 살라미 시장은 최근 4년간 연 평균 16.7% 성장했다. 이 기간 윙입푸드의 매출 성장세는 26.1%다.

왕현도 윙입푸드 대표이사는 "우리 회사는 살라미에서만 150개 제품을 갖고 있고, 제품 라인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면서 "살라미 시장에서 입지는 계속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윙입푸드는 현재 중국 광동성, 절강성, 상하이 등 화남·화동 지역 위주의 판매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으며, 53개의 대리상은 대형마트 및 식품매장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직영사이트를 개설해 대리상과 온라인 거래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티몰, 징동 등에 입점하여 유통경로를 다변화 했다. 상장 이후에는 중국 전역의 주요 거점에 직영점을 개설해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한국 시장에 상장한 회사라는 브랜

드를 활용해 고객 신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왕 대표는 "한류라는 자체가 중국에서 인식이 좋다"면서 "한국에 상장한 중국 식품기업이라는 것 만으로도 회사의 부가 가치가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우수한 식품을 중국에 수입해서 무역하는 식의 대리판매 계획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충분히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왕 대표는 "한국 시장에서 중국기업 부정적 시각은 재무투명화, 공시의 투명화 문제인 것 같다"면서 "먼저 올해 처음으로 한국거래소의 새로운 심사기준을 만족시키고 통과한 외국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최대주주가 공시를 담당하는 것으로 공시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당 공모희망가는 2000원~3000원으로 총 1020만주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마련된 199억원의 공모자금은 설비 투자(41%), 유통망확대(30.0%)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손엄지 기자 sonumj301@metroseoul.co.kr

토지매매 대금 미지급 사업시행 '주의보'

매입금 받고 토지사용승낙서 넘겨야
승낙 후 지연땐 재산권 행사 어려워

작년에 경기도 화성에서 한 민간 건설사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주에게 잔금 지급을 하지 않은 채 토지를 신탁사에 맡기고 거액을 대출받았다.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이 완료됨과 동시에 신탁사에 신탁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건설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이 지역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우선수익자는 신탁사에 귀속됐으며 지주들은 신탁사의 보증인으로 전락해 버렸다. 더욱이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토지(건축)주가 토지 또는 건물을 송두리째 날릴 처지가 돼버렸다.

최근 민간 시행사가 건축 예정 부지의 토지(건물) 매매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토지(건물)주들이 재산권 행사마저 할 수 없어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 문제는 자금력이 부족한 민간 건설사가 무리하게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다. 일부 민간 건설사는 수백 억~수 천 억원에 달하는 사업 부지의 매입 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또한 토지 및 건축물 매입 자금을 곧 지급할 것처럼 설명,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토지주는 잔금 지급 시기 등

계약의 세부 사항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전체 토지 매매가액의 10%도 되지 않는 계약금 일부만을 받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넘겨주고 있다. 결국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모든 피해는 토지주의 몫이다. 민간 건설사가 공동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 일부 지주의 반대로 사업진행이 긴 시간 동안 지연되기도 한다. 이 경우 토지 이용 승낙을 한 지주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이슬람화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역 개발을 기대하고 토지 사용을 승낙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사업 부진으로 지역이 오히려 낙후되면 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과

갈등을 겪기도 한다.

토지 매매 잔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이주도 할 수 없다. 잔금이 신속히 지급될 줄 알고 폐한 개발지역 상가의 점주의 피해도 막심하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더라도 토지주는 종종 낭패를 보곤 한다. 한 예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돼 시행사로부터 잔금을 지급 받더라도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경우다. 또한 개발 사업이 성공해 큰 수익이 나더라도 그 대부분은 시행사의 몫이다.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것은 겨우 토지 매매대금 뿐인 경우가 많다. 그마저도 제 때 받지 못하고 속앓이를 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 토지주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토지 사용승낙을 하기 전에 계약서 상의 조건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헤드락VR' 론칭… 빅뱅 승리 디렉터 선임

하나금융투자, 소셜네트워크 지원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2월 야심차게 투자한 AR/VR(증강현실/가상현실) 전문 기업인 소셜네트워크가 지난 7일 VR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헤드락(Head Rock VR)'을 론칭했다고 8일 밝혔다.

'헤드락VR'은 유명 연예인이자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가 해당 부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선임되었다. 승리는 '헤드락 VR'의 브랜드 컨셉 및 로고 디자인 작업에 직접 참여했으며, 앞으로 해당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은 7일 열린 '헤드락 VR' 쇼케이스 현장에서 축사를 통해 "글로벌 스타인 승리와 국내 벤처업계 스타인 박수왕 대표가 글로벌 VR 대표기업을 만드는데 하나금융투자가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4차 산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가운데)이 쇼케이스 현장에서 박수왕 소셜네트워크 대표(오른쪽 첫째), 알펜루트자산운용 김향기 대표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업혁명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금융투자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왕 소셜네트워크 대표는 "하나금융투자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승리와 함께 '헤드락 VR'이 글

로벌 힙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헤드락 VR'은 오는 11월 15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 1호점을 오픈한다. 이를 시작으로 연내 멕시코, 일본, 라스베가스, 중국, 서울, 부산 등 국내 외 8개 지점을 오픈 할 예정이다.

/김문호 기자 kmh@

내년 AI가 펀드약관 심사
금감원, 파일럿테스트 완료

내년부터 인공지능(AI)이 펀드 약관을 심사한다. 금융감독원은 AI 약관심사 시스템의 파일럿 테스트를 마치고 내년 본격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AI 약관 심사는 선태크(SupTech·감독+기술)를 도입해 활용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KT 등과 협업팀을 구성해 시범 시스템을 구축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 왔다. 금감원은 연간 5000건이 보고·접수되는 사모펀드 약관의 심사시간이 3분의 1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AI 약관 심사는 국내 최초의 선태크 활용 사례로 심사 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등 금감원 업무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금융상품의 약관 심사 이외의 다른 업무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